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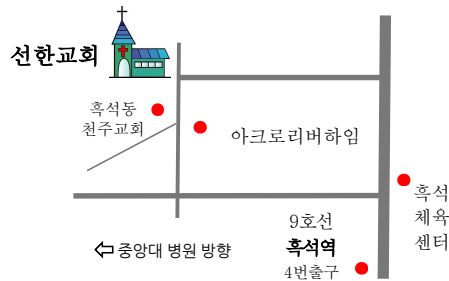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유 아 부	오전 10:00
2부 주일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요 셉 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바 울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루 디 아 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마 리 아 회	오후 2: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드 보 라 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에 스 더 회	오후 2: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한 배 선
	교육목사 정 용 준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협력전도사 오 호 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 외 협 력 선 교 사	이금춘, 조나단, 김만조
	박 회 태, 유 신 웅		
	조 윤 익		
장 로	이 태 수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영 근, 윤 호 중	500/50 교 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편 도 선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 임춘배 목사
	3부 오후 1시		인도 : 정용준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9장 (통일찬송가 29장)		
교 독 문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찬 양 과 경 배	360장 (통일찬송가 402장)		
기 도	편도선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씀 봉 독	디모데후서 4장 6~8절		레 1:2~4
설 교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임춘배 목사)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힘입니다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이하은 성가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청년부 회장
파 송 의 노 래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예배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사회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기 도	다 함께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	
말 씀	세 번째 환상: 불신자의 멸망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어찌하여 불안해 하는가 (시 42편 1~11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오늘 점심 봉사 부서는 루디아회입니다. 3)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4) 주차 안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주차권을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월 삭 새 벽 예 배	4월 3일(월) 월삭새벽예배 (주관: 안양/과천/강북/관악/강서)	
총동원금요기도회	4월 7일(금) 총동원금요기도회 (주관: 여호수아/루디아)	
3. 부 활 절	4월 9일 주일 예배는 부활절 축제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축 제 예 배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4월 9일(주일) 새벽 5시 흑석동교회연합 * 장소: 명수대교회	
4. 조 이 앤 드	일시: 4월 8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위 크 샵	대상: 교회 모든 찬양팀, 찬양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장소: 지하 2층 청소년부실	
5. 김 만 조	1) 한국어 수업: 자모음 교구, 낱말 카드, 교실 데코레이션, 한글노트,	
선 교 사	세종 한국어 1~8권 세트	
물 품 후 원	2) 음악 도구: 리코더, 멜로디언, 오카리나, 트라이앵글 등	
	3) 태권도 용품: 도복, 미트	
	4) 수학 도구: 수학 교구	
	※ 4월 2일(주일)까지	
6. 떡 제 공	김성찬, 전지혜 성도 가정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삶이 되도록.
--------------	--

찬송 :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통 253)

본문 :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모든 종교는 실상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결론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똑같다'는 것처럼 무지한 주장도 없을 것입니다.

21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이고 두 번째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율법과 경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세의 율법과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슬람교는 무함마드의 율법과 쿠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와 이슬람 교리의 결정적 차이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을 믿지만 이슬람교에는 원죄와 타락에 대한 교리가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무함마드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자기 공로에 근거한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뿐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철학은 바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본성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선포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를 통해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요 8:32).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이 선한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기준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 '조에'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 목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딤후 4:6~8)

서 론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해야 합니다.

본 론

1.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

- (1)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1절)
- (2) 우리는 (어렵지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 (5절)
- (3)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7절)
- (4)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8절)

2. 교훈

- (1)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 (2)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직무는 무엇인가?
- (3)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 면류관을 받을 확신이 있는가?

결 론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편도선 장로	윤호중 장로
2부 예배 헌금	백영미 집사	이소영 집사
오후 예배 기도	방성자 집사	백영미 집사
주 방 봉 사	루디아회	청년 / 청소년

매일 Q.T.		헌신과 배신, 주님에 대한 상반된 태도	날짜 : 4월 3일
찬양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본문	마태복음 26:6~16		
말씀요약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기억되리라고 하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습니다.		
묵상질문 1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 26:6~13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매우 귀한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께 부어 드렸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묵상질문 2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 26:14~16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가롯 유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유익이나 돈 때문에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적이 있나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6장 7절 참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리고, 거짓 성도는 예수님을 자기 삶에 이용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행동입니다. 반면 예수님에게서 부와 영광을 기대했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 돈을 챙깁니다. 참 성도는 육신의 형통보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나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다른 사람의 헌신을 제 생각대로 판단하고 오해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는 한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는 저와 공동체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	
찬양과 기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새 94)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교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졸업 후 금융 정보 회사를 창업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모교에 거액을 기부한 이유는 어려운 학창 시절, 학교에서 나오는 장학금이 아니었더라면 꿈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에도 한동안은 불과 5달러 정도밖에는 기부할 능력이 안 되었지만, 그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자신을 치료해 준 병원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거액의 기부와 넘치는 감사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이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자신이 받은 것에 비하면 이 보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많이 기부하고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로는 다 갚을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존재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져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해 본 경험 있나요?
말씀 나누기	마태복음 26:6~16
묵상포인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은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하시며,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 주십니다. 약 3년간 함께하던 제자가 배신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수치와 모욕과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아시면서도 자발적으로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도는 이를 항상 기억하며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예수님은 이 일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하셨나요?(7, 12절)
적용하기	합리성이나 경제성을 따지면 손해 보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아름다운 헌신을 이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세상 욕심에 눈먼 가롯 유다처럼 제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영원한 구원	날짜 : 4월 7일
찬양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본문	마태복음 27:35~53		
말씀요약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 패를 붙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오라며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 외치시고 돌아가시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묵상질문 1	조롱받으시는 예수님 27:35~44 조롱과 모욕에도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이름이 조롱당하는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묵상질문 2	예수님의 죽음과 성도의 부활 27:45~53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나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누리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7장 46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외침은 고통의 절규를 넘어 우리 삶을 바꾼 역전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적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랑의 절정(絶頂)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외침과 사랑을 가슴으로 듣고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고귀한 몸을 완전히 찢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죄인들에게 열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제 자랑이요 기쁨이며 구원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조롱과 고통을 묵묵히 받으신 주님의 길을 저도 따르게 하소서.		

매일 Q.T.		유월절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날짜 : 4월 4일
찬양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문	마태복음 26:26~35		
말씀요약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복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고 잔은 죄 사함을 위해 주님이 흘리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이 당일 밤 제자들이 그분을 버린다고 하시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묵상질문 1	마지막 유월절 만찬 26:26~30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신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돌이킬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26:31~35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알려 주셨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쏟아부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한 하나님 사랑은 늘 우리 삶에 흘러넘치고, 그 사랑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누리며, 또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가 누리는 죄 사함의 기쁨은 주님이 친히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겠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몇 번을 다짐해도 저는 믿음을 지켜 내기에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머무는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매일 Q.T.		기도로 준비하신 십자가의 길	날짜 : 4월 5일
찬양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본문	마태복음 26:36~50		
말씀요약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동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시지만, 결국 아버지 원대로 하시길 기도하십니다. 이 같은 기도를 세 번 하신 후 제자들에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그때 유다가 무리와 함께 옵니다.		
묵상질문 1	기도하시는 예수님, 잠든 제자들 26:36~46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깨어 있기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깨어 기도로 준비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배반의 입맞춤, 체포되신 예수님 26:47~50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왜 순순히 체포되셨을까요?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친구로 대하신 주님을 보며 어떤 교훈을 얻나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드셨기에 성도는 하늘 잔치의 잔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잔은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이었습니다. 그 잔은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을 위한 것입니다(계 14:9~10). 그러나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포도주를 나누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사25:6; 마26:29). 성도는 장차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기쁨의 잔치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아버지 뜻을 구하셨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쁘고 고단하다는 이유로 기도예 게을렀던 저를 용서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로 서로를 붙들게 하소서.		

매일 Q.T.		의로우신 주님을 정죄한 무책임한 결정	날짜 : 4월 6일
찬양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본문	마태복음 27:15~26		
말씀요약	명절이 되면 총독이 우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지 묻자,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시기해 자신에게 넘긴 줄 알지만, 민란이 날까 두려워 예수님을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묵상질문 1	무리의 선택 27:15~21 예수님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의 의중을 아는 빌라도는 어떤 제안을 했나요? 내가 바로 예수님 대신 풀려난 죄수임을 알고 있나요?		
묵상질문 2	빌라도의 무책임한 결정 27:22~26 빌라도의 최종 결정을 좌우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내 삶과 공동체에서 무책임하게 처리한 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불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태복음 27장 22절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죄인의 행함은 악하고 비루합니다.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목숨을 앗아간 이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께는 영광을, 예수님을 죽인 죄인에게는 피 값을 돌림이 마땅합니다. 자신이 바로 그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는 성도는 겸손히 행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빌라도의 비겁함이, 대제사장들의 악함이, 무리의 무지함이 저와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항상 하나님 뜻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